

서울시 방과후학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2009. 3. 23 제34호

이혜숙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확대되는 지역간 교육 격차
- II. 서울시 방과후학교의 현주소
- III. 서울시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요 약

최근 지역 간 교육격차의 확대와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방과 후에 홀로 남은 아동이 급격히 늘고 있어 방과 후 아동 보육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방과후학교는 2007년부터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정책에 따라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도 종전의 특기·적성 교육에서 수준별 보충수업과 방과 후 보육까지 확대되었다. 현재 서울시 초·중·고의 99.8%가 특기·적성과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당 개설 강좌 수는 24.2개이며 일반계고가 42.1개로 초·중학교의 두 배 이상을 개설하고 있다.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주로 초등학교에서, 교과 관련은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특기·적성이 많은 학교일수록 외부 강사 의존도가 높고 교과 관련이 많을수록 교사 참여가 많은데, 실제로 교사참여율은 초등학교 6.7%, 고등학교 43.9%로 고등학교에서 월등히 높다. 방과후학교 운영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64.9%, 서울시에서 21.9%의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수강비는 강좌당 4만 4000원이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예산 지원뿐 아니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과 불리한 조건의 학생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향후 서울시에서도 모든 방과 후 활동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방과후학교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강남·북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소득계층 간 격차 완화, 지역 간, 학교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향후 서울시에서는 방과후학교 예산을 확충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운영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서울시 방과후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단위 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별, 지역별, 학습자별 차이를 고려한 서울형 방과후학교 기본모형을 개발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셋째, 학교 안팎을 연결하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퇴직교원이나 자원봉사자 등 지역 자원을 강사로 활용하고, 체육관, 박물관, 도서관 등 지역시설을 연계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다. 넷째, 방과후학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조직과 예산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I. 확대되는 지역간 교육격차

지역간 학업성취도 격차 확대

-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국적으로 학업성취도 차이가 증가
 - 2003년 일반계고 2학년 학업성취도 조사 결과, 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 간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11~15점 차이 발생
 - 지역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차이가 확대
 - 특히, 수학 교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에서 대도시와 읍면 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그 차이가 0.8%였으나, 중학교에서는 4.3%, 고등학교에서는 4.8%로 확대

<표 1> 지역규모별 기초학력 미달 빈도 비율(2006)

(단위: %)

구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국어	3.2	3.3	6.5	7.4	7.0	9.1	4.0	4.4	5.8
사회	1.8	1.6	2.2	7.1	6.3	8.6	12.4	11.4	17.7
수학	1.1	1.2	1.9	6.1	6.8	10.4	9.6	10.2	14.6
과학	2.1	1.7	2.7	5.8	5.4	7.4	12.6	12.5	16.8
영어	2.6	2.5	5.2	4.6	4.7	6.5	4.2	5.2	6.8

주 : 기초학력 미달은 평가대상 학년급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기본 내용을 20% 이하로 이해한 수준을 말함.

출처 : 교육과정평가원(2007). 200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지표-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서울지역 학력 격차도 심각

-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강남과 비강남 지역 학업성취도에서 큰 차이
 - 초등학교 6학년의 성취 수준에서 보통 이상 비율이 수학은 강남이 93.6%인 반면 동부는 78.9%이며, 영어는 강남이 95.1%인 반면 동부는 77.0%로 15%p 이상 차이

<표 2> 초등학교 6학년 학력성취도 평가 결과(2008)

(단위: %)

지역청	국어			수학			과학			영어		
	보통 학력 이상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보통 학력 이상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보통 학력 이상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보통 학력 이상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강남	90.8	8.1	1.1	93.6	5.8	0.7	90.7	8.1	1.3	95.1	4.1	0.8
강서	84.9	12.7	2.4	88.1	10.6	1.3	85.0	12.6	2.4	87.4	10.6	2.0
북부	83.4	14.3	2.4	87.4	11.2	1.4	84.6	13.1	2.3	87.1	10.7	2.2
성북	79.4	17.3	3.4	82.1	15.7	2.1	80.4	16.0	3.6	79.4	16.7	3.9
동부	75.7	20.3	3.9	78.9	18.5	2.6	78.8	17.4	3.7	77.0	18.4	4.6
전체	67.0	25.0	8.0	54.3	35.1	10.7	49.5	32.3	18.1	63.2	29.3	7.5

출처 : 2008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교육과학기술부 학력증진지원과(2009)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도 가중

□ 서울시 사교육비 부담이 전국의 23.12%나 차지

- 2008년 전국의 사교육비 총량은 20조 9095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2% 증가
- 서울의 사교육비 총량은 4조 8,343억 원으로 전국의 23.12% 차지

<표 3> 사교육비 규모

(단위 : 억원, %)

구분	2007년		2008년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초등학교	20,116	102,098	20,677	104,307
중학교	14,256	56,120	13,819	58,135
고등학교 (일반계고)	15,919 (12,963)	42,181 (38,655)	13,812 (13,395)	46,652 (42,975)
계	49,973	200,400	48,343	209,095

주 * : 서울시 사교육비 규모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12개월 × 서울시 학생 수

** : 서울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2008년 총액이 감소

출처 : 사교육비 조사, 각년도, 통계청

- 2008년 전국 학생 1인당 지출 사교육비는 월 평균 23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
- 서울지역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전국보다 높은 29만 6000원

<표 4>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 %)

구분	2007년		2008년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초등학교	25.2	22.7	27.2	24.2
중학교	31.6	23.4	31.5	24.1
고등학교 (일반계고)	31.2 (37.5)	19.7 (24)	31.8 (37.5)	20.6 (24.9)
계	28.4	22.2	29.6	23.3

출처 : 사교육비 조사, 각년도, 통계청

- 교육비가 매우 부담된다는 학부모들 의견이 전국 39.8%, 서울 40.1%이며, 해가 갈수록 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

<표 5>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계1)	매우 부담		약간 부담		보통		별로 부담 안됨		전혀 부담 안됨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2000	100.0	31.5	29.0	44.2	44.4	17.3	18.6	5.2	5.9	1.8	2.1
2004	100.0	41.4	37.8	40.5	39.6	14.4	6.6	3.0	4.6	0.7	1.4
2008	100.0	40.1	39.8	40.2	40.0	14.2	15.6	4.9	4.1	0.5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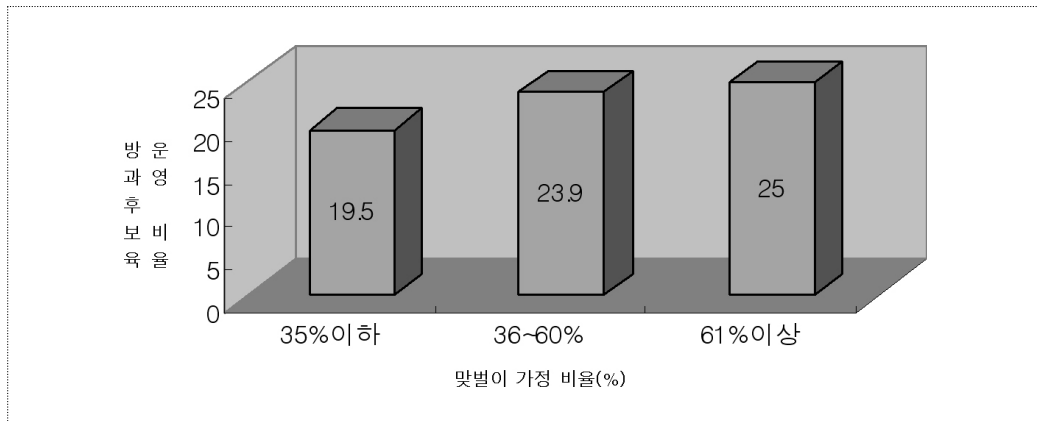
주 : 1)학생이 있는 30세 이상 가구

출처 : 사회조사(교육, 안전, 환경), 2000, 2004, 2008, 통계청

맞벌이 가구 증가로 방과 후에 홀로 남는 아동 증가

□ 서울시 초·중·고생 가정의 52.3%가 맞벌이 가정

- 2008년 서울시 초·중·고 전수 조사결과 맞벌이 가정비율은 52.3%
 - 맞벌이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방과후보육에 대한 요구가 크며, 맞벌이 비율이 60% 이상인 학교의 25%가 초등 방과후보육을 운영
 - 2006년 전국의 맞벌이 가구 비율은 43.9%, 서울은 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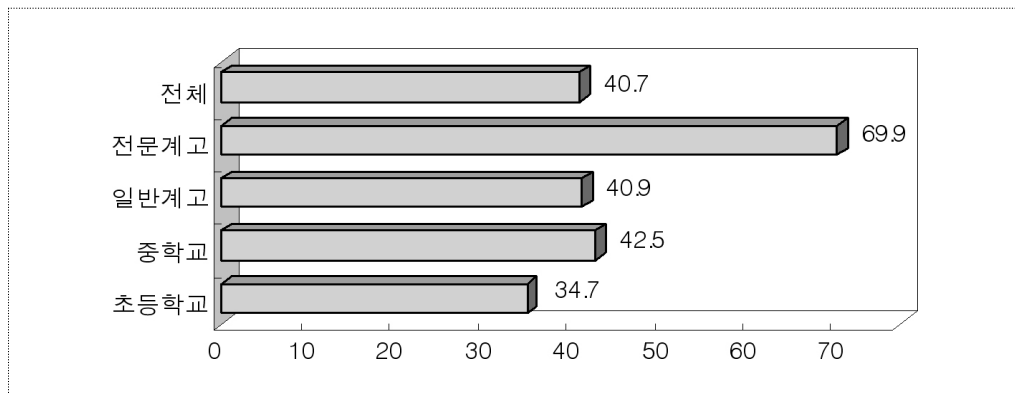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그림 1] 초등학교 방과후보육 운영 비율

□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보육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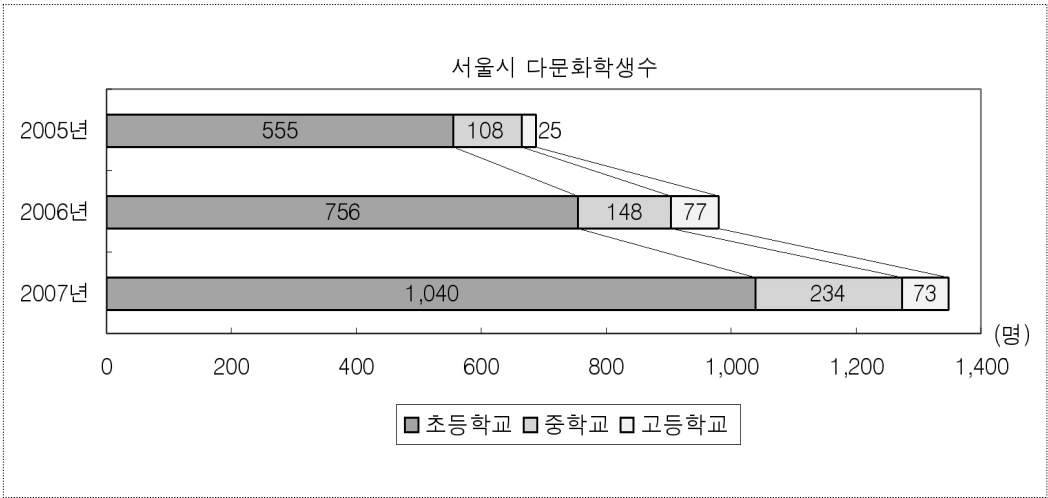
- 서울시 초·중·고의 한부모 가정 학생 수는 학교 당 40.7명으로 3.8%



출처: 서울시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그림 2] 학교당 한부모 가정 학생 수

- 국제결혼으로 서울의 다문화 가정 학생 수도 급격하게 증가
 - 초등학교는 2005년 555명에서 2007년에는 1040명, 중학교는 108명에서 234명, 고등학교는 25명에서 73명으로 2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



출처: 2005-2007 다문화 가정 학생현황, 보건복지부, 2007

[그림 3] 다문화 가정 학생 수

II. 서울시 방과후학교의 현주소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방과후학교 전면 시행

□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정책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

- 특기·적성 교육에 수준별 보충학습과 초등 방과후보육을 통합해 추진
- 2007년 방과후학교는 전국 98.7%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

방과후학교 추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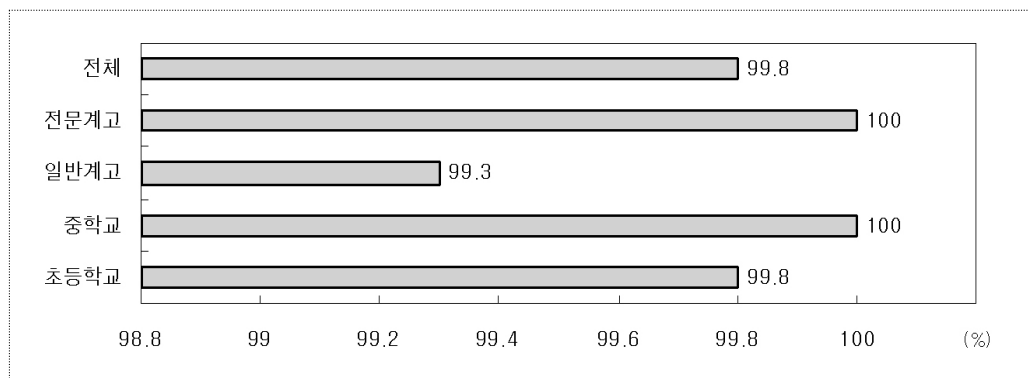
- 방과후학교는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사교육 수요의 공교육으로의 흡수 방안에 의거해, 방과후교육 활동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그 후 고등학교에 수준별 보충수업의 추가, 초등학교에 특기·적성교육에 수준별 보충학습 및 저학년 아동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 도입
- 2005년도에 전국 48개의 초·중·고등학교의 연구학교, 2006년에 시범학교 운영을 거쳐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함. 이에 따라 그동안 사용되었던 특기적성 교육, 보충자율학습이라는 명칭을 2006년부터 방과후학교로 통합하여 사용.

년도	추진 내용	용어
1995년	방과후 교육활동 제안(교육개혁위원회)	방과후교육활동
1996년	'방과후 교육활동' 이란 명칭으로 각급 학교에 실시	
1998년	입시위주의 보충수업의 단계적 금지 ('교육비전 2002' 발표)	
	↓	↓
1999년	'특기·적성 교육' 으로 변경	특기·적성교육
	↓	↓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방과후학교 제시	방과후학교
2005년	방과후학교의 시범학교 도입(연구학교)	
2007년	방과후학교로 통합하여 전면 실행	

서울시 거의 모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 서울시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는 방과후학교를 직접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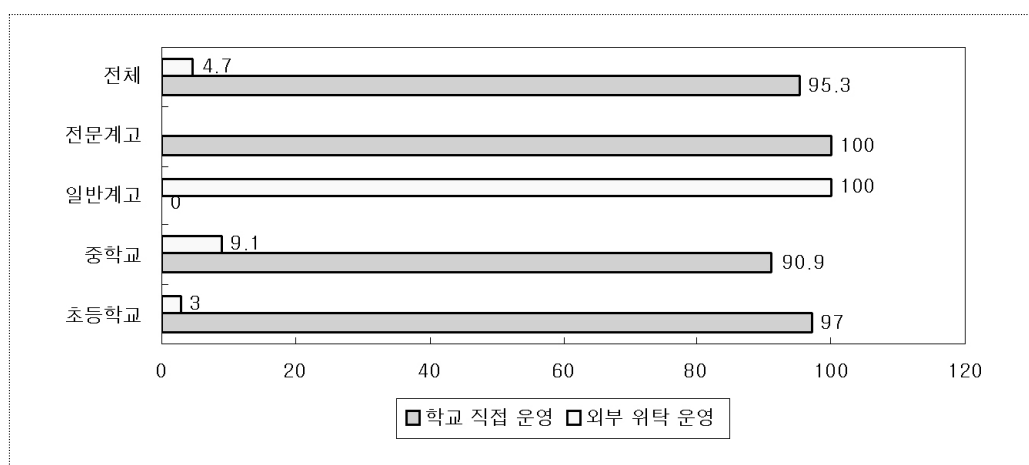
-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전수조사에서 초등학교 99.8%, 일반계고 99.3%, 중학교와 전문계고는 100% 운영



출처: 서울시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그림 4] 방과후학교 운영율

- 학교의 직접 운영은 전체 학교 중 95.4%로, 위탁 운영은 4.7%에 불과
- 일반계고, 전문계고는 100% 직접 운영인 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97%, 90.9%의 학교가 직접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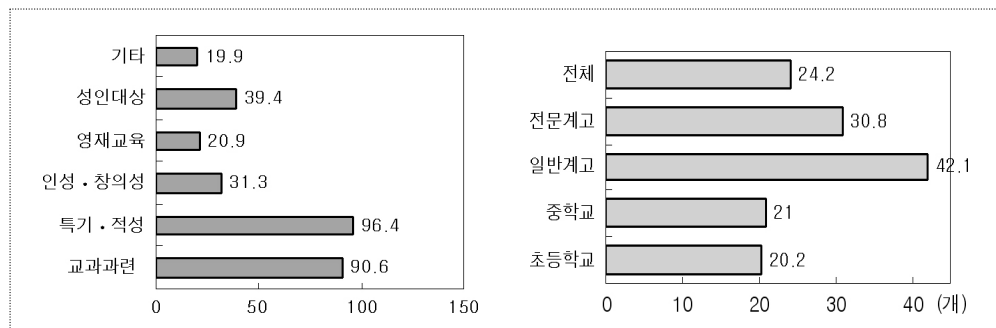


[그림 5] 방과후학교 운영 주체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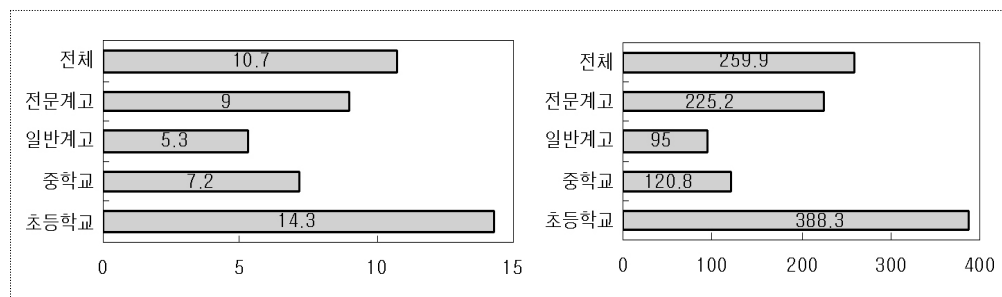
□ 특기·적성과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개설

- 특기·적성이 96.4%, 교과 관련은 90.6%로 높은 반면, 인성·창의성은 31.3%, 영재교육은 20.9%에 불과
- 개설 강좌 수는 일반계고가 42.1개로, 초·중의 2배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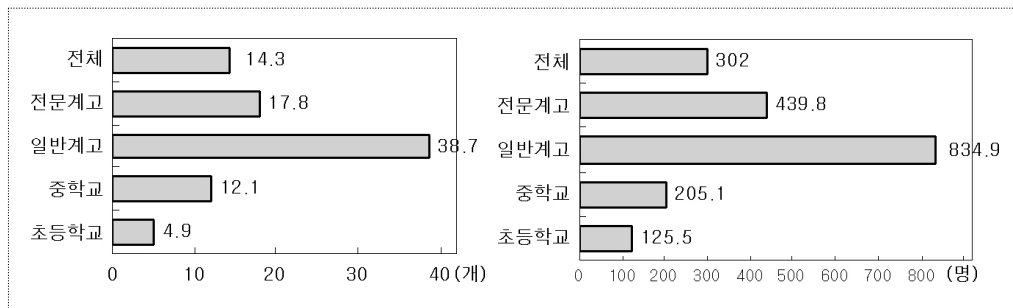
[그림 6] 학교당 개설 프로그램과 강좌 수

-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에서 학교당 14.3개로 가장 많이 개설하고, 388명, 34.7%의 학생이 참여
- 기초수급가정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3.2%인 반면 기초수급가정 학생이 적은 학교에서는 20.48%가 참여하여,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 참여가 저조



[그림 7] 학교당 특기·적성 프로그램 개설 강좌 수와 수강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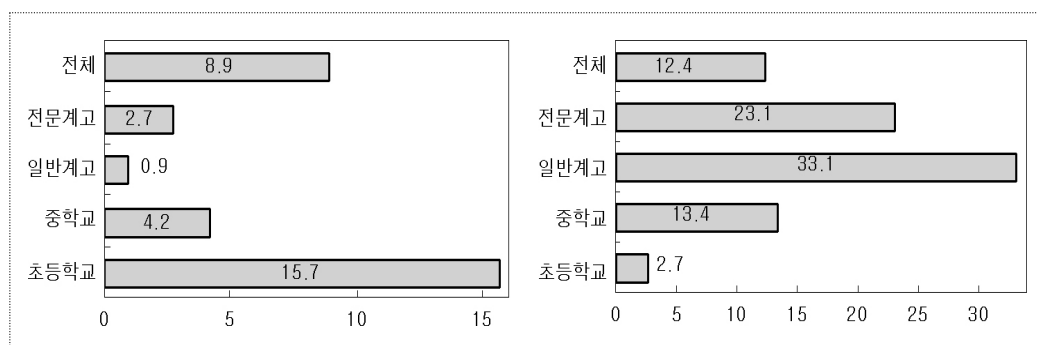
- 교과 관련 프로그램은 일반계고에서 가장 많은 강좌 개설
 - 학교당 평균 14.3개를 개설하였으며, 일반계고 > 전문계고 > 중학교 > 초등학교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교과 관련 프로그램 강좌 수가 감소
 - 일반계 고등학생은 834명, 62%의 학생이 교과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



[그림 8] 학교당 교과 관련 개설 강좌수와 수강 학생수

높은 외부 강사 활용도

-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외부 강사 의존도가 높고, 교과 관련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교사 참여가 증가
- 외부 강사 수는 초등학교가 15.7명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며, 중학교 4.2명, 일반계고 0.9명, 전문계고 2.7명
 - 교사 참여는 초등학교 2.7명으로 가장 낮은 반면, 교과 관련이 많은 일반계 고등학교는 33.1명으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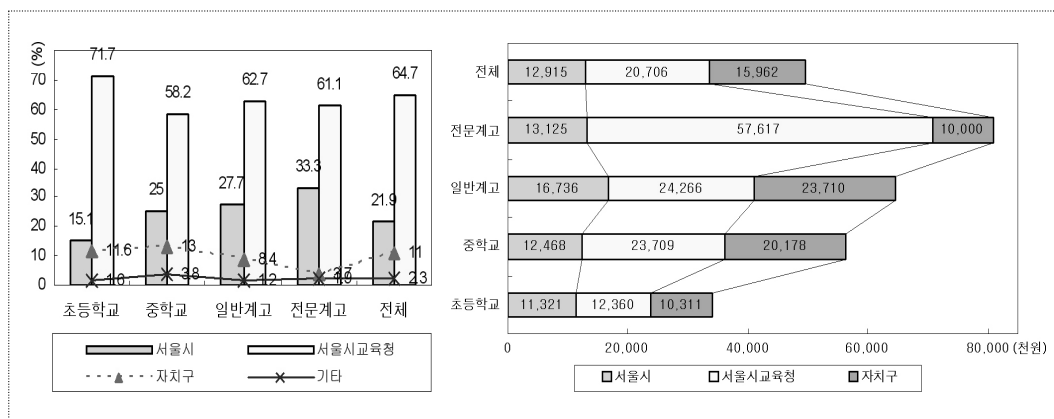


[그림 9] 학교당 참여 외부 강사 수 및 교사 수

운영비는 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

□ 서울시교육청이 64.7%의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

- 서울시교육청은 64.7% 지원하는 반면, 서울시 21.9%, 자치구 11.0%에 불과
- 지원액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며, 전문계고가 5761만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액을 수령
- 주로 저소득층 수강비 지원 69.4%, 강사비 보전 49.6%



[그림 10] 운영비 지원기관 및 지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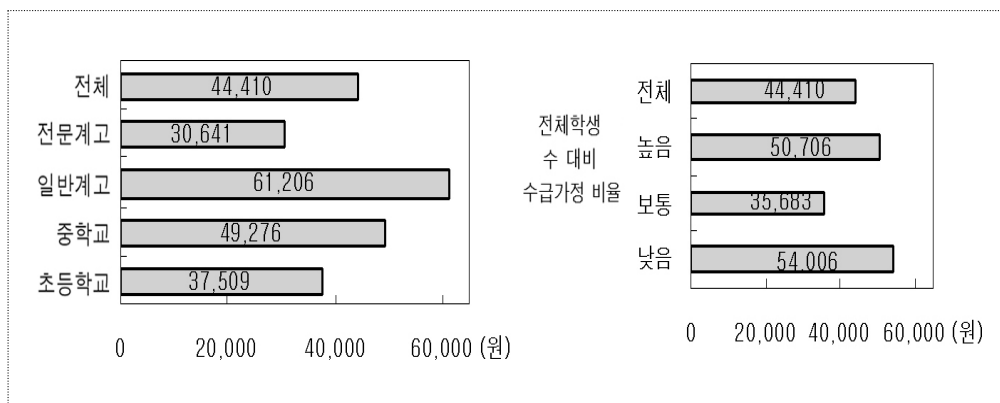
□ 서울시교육청은 불과 153억 7771만원을 방과후학교에 지원

- 자유수강권(바우처)에 114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
 - 초등 방과후보육에 19억 1593만원, 대학생 멘토링에 15억 2498만원, 시범학교에 1억 8000만원, 거점학교에 5억 680만원을 지원
- 서울시는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에 38억 9600만원을 269개교에 지원에 그쳐 미미한 실정

- 교육지원사업 예산의 약 8%, 전체 학교 수의 22%를 지원
- 중점학교에 2000만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000만원, 초등 방과후보육에 2256만원을 지원

□ 강좌당 수강비는 4만 4000원으로 학부모에게 약간은 부담

- 일반계고는 6만 1206원으로 가장 높은 수강비를 받고 있으며, 전문계고는 3만 641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
- 저소득층에게 바우처 제도로 지원하나, 소득수준에 따른 수강비 차이는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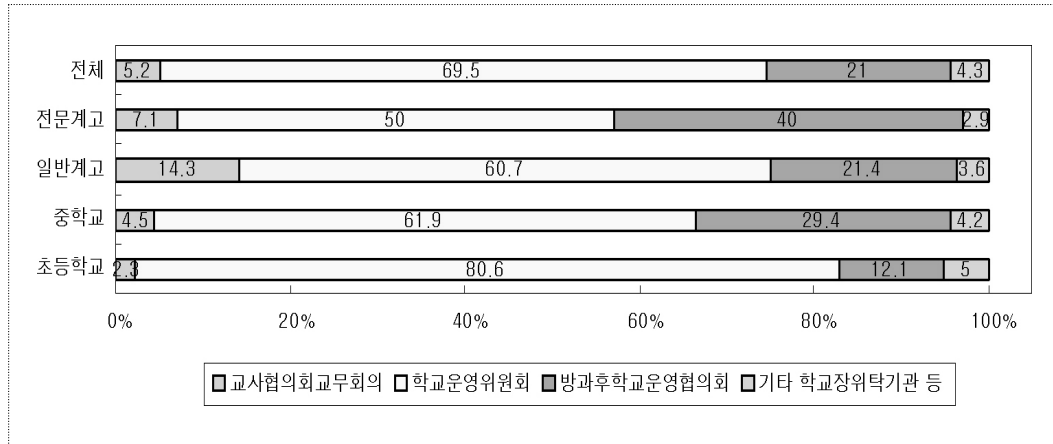


[그림 11] 강좌당 수강비

행·재정 지원이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

□ 방과후학교 운영은 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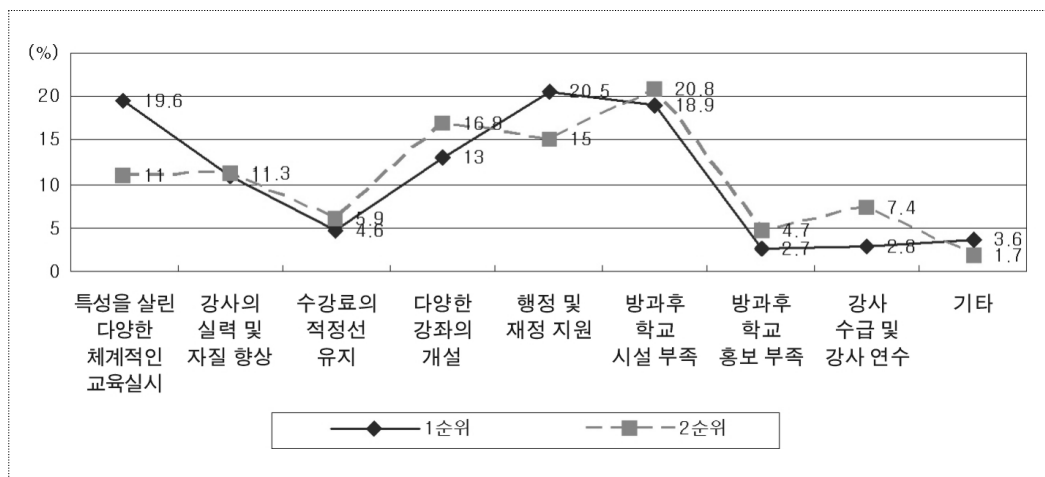
- 학교운영위원회 69.5%, 방과후운영협의회 21%로 비교적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



[그림 12] 운영방식의 결정 주체

□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행·재정 지원과 시설 부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실정

- 지원 요구 1순위로 행·재정 지원 20.5%, 특성을 살린 체계적 교육 실시가 19.6%
- 2순위로 방과후학교 시설 부족이 20.8%



[그림 13] 방과후학교 개선 요구 사항

III. 서울시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모든 방과후학교 활동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추진

□ 방과후학교 활동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 정규 교육에서의 격차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보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지원
 -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선택하여 집중 지원하여 강남·북의 격차를 감소시킬 필요
 - 저소득 학교에 대한 지원을 현재보다 확대하여 저소득 지역의 70% 이상의 학교를 지원해 나갈 필요
- 차상위 계층까지 수혜의 폭을 확대하여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
 -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 바우처를 제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방과후의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고
- 획일적 지원에서 탈피하여 지역, 학교급을 고려한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
 - 지원 예산 차이 외에 프로그램 간 차별화가 미흡한 현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소질계발과 교과 보충의 프로그램으로 구별하여 학교급에 따라 지원
 - 초등학교는 특기·적성과 소질계발,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고등학교는 교과 보충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방안 필요

-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를 만들기 위한 자원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서울시의 방과후학교 예산을 현재 지원액 75억보다 5배 이상 확충할 필요
 - 서울시 소재 초·중·고의 2008년 현재 지원율 22%에서 45%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
 - 방과후학교 관련 기금의 조성으로 자원의 다변화를 시도하여 재정을 확충할 필요
 - 미국의 LA시처럼, 기금을 조성하여 돈이 없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

미국의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터 프로그램

(21st CCLC: 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

- 2002년 승인된 NCLB법(The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은 주교육청이 주의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터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규정. 주정부가 관리하는 이 프로그램은 연방에서 예산이 지원되며, 5년 동안 방과 전 및 방과후활동을 마련하고 확대하는 데 보조금을 지급. 이 중에 방과 전 활동은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는 학생들(K-12)에게 교과 보충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
- 방과 전 학교활동의 주안점
 - 학습 성과 개선
 - 정규 교과 프로그램의 내용을 강화하고 보충하는 교과 보충 심화학습 서비스
 - 가족 문맹률 감소 및 관련 교육 개발 서비스

(출처: Malloy, J. D. “미국의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2008)

- 주요 추진전략
 - 서울시교육청을 통한 지원에서 탈피하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

- 주요 과제와 추진전략

주요 과제	추진전략
운영방식의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민간이 방과후학교의 운영 주체로 참여 • 서울시와 단위학교의 협약 체결 • 서울시방과후활동지원센터(가칭) 설립
학교급, 지역,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방과후학교 모형개발 프로그램 특화 • 수준별 수업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학교 안팎을 연결하는 운영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 지역 인력을 통합하는 강사 시스템 구축 • 학교 시설과 지역 시설을 연계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
법·제도 및 비용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조례 제정 • 지원체계 마련 • 저소득층 수강비 지원

운영방식의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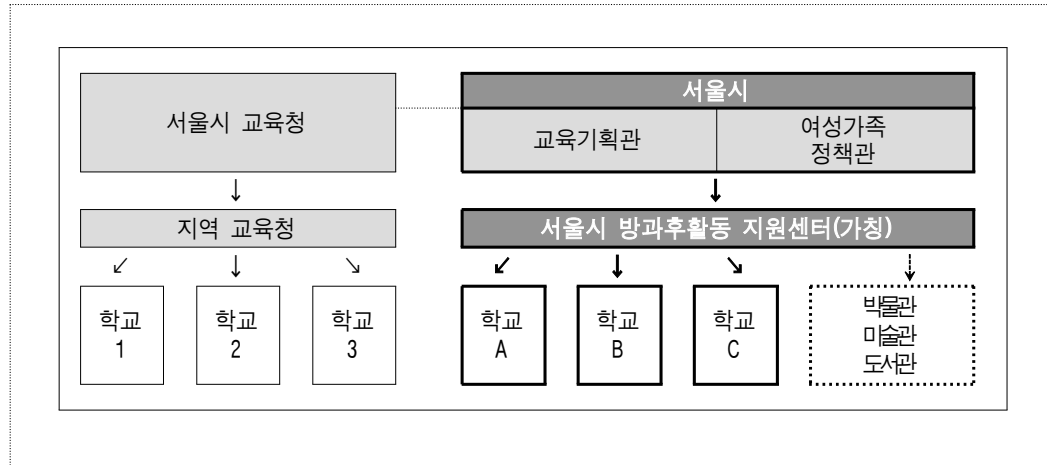
□ 지자체, 민간 등의 참여로 운영 주체의 다변화를 유도할 필요

- 서울시도 단위 학교와 협약 체결로 방과후학교 운영에 참여할 필요
- 해외 주요국은 지자체가 방과후 프로그램에 적극 관여

LA의 Best(Better Educated Students for Tomorrow) 사례

- 1988년 LA시장이던 탐 브레들리(Tom Bradley)가 시정연설에서, 많은 아이들이 방과 후에 안전한 장소가 없어 다른 대안이 없는 한 폭력배가 되거나 마약을 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데서 시작함. 5개월 후 취약한 20개의 학교를 시작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시작
- 현재까지 LA 180개 초등학교에서 28,000명이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LA시를 주축으로 LA시교육청, 민간이 운영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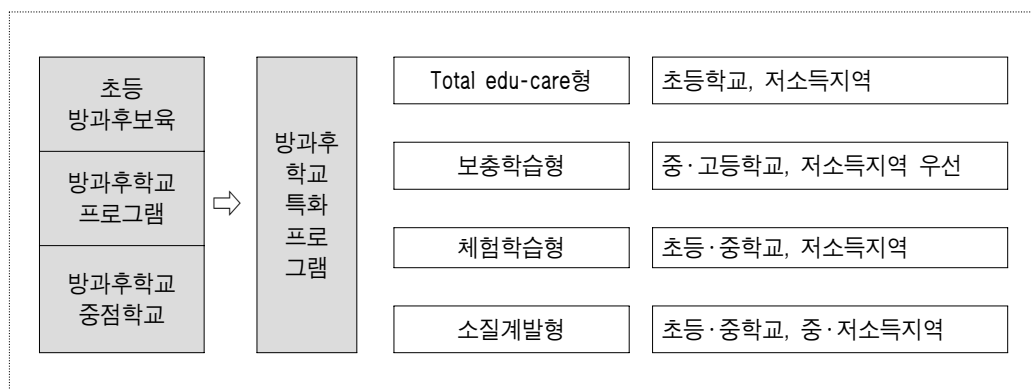
- '서울시방과후활동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서울시 부서별로 분산된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 추진하고 서울시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와 연계



[그림 14] 서울시방과후학교 운영방식

학교급, 지역,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 학교급, 지역을 고려한 서울형 방과후학교 기본모형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특화
 - 개설 요구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초등학교는 특기·적성, 고등학교는 보충 학습 중심으로 개발
 - Total edu-care형, 보충학습형, 체험학습형, 소질계발형으로 개발하여 보급



[그림 15] 서울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기본 모형

□ 프로그램 간 계열적 구성을 통해 수준별 수업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

- 수준별 수업이 가능한 운영 방식을 연구하여 보급
- 인근의 2~3개 학교를 연계하여 수준별 수업의 기반을 조성

학교 안팎을 연결하는 운영 시스템 구축

□ 교사와 지역 인력을 통합 관리하는 강사 시스템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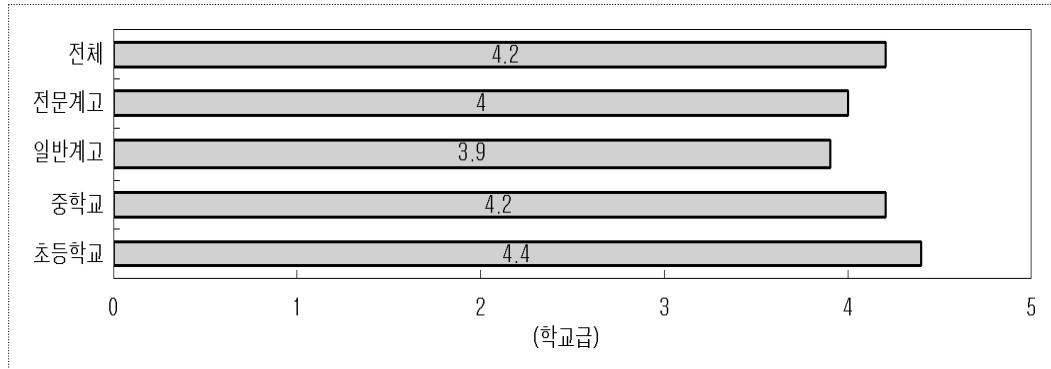
- 교사 위주의 강사에서 퇴직교원, 자원봉사자, 노인 등 지역 자원을 강사로 활용하여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
- 문제 강사를 문책·징계할 수 있는 강사의 질 관리체계 마련

지역 성인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일본의 방과후학교

- 일본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아동교실 추진사업, 지역 자원봉사활동 추진사업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사업들은 아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 제휴하는 방식으로 운영
- 이 중 지역의 아동교실 추진사업은 지역 성인의 협력을 얻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혹은 주말에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간의 교류를 촉진

□ 학교 안팎의 시설을 연계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서울시의 다양한 시설과 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시설(체육관, 박물관, 도서관 등)을 연계하여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
- 서울시에 대한 지원 요구는 특성화교실 및 시설지원이 4.2점으로 매우 높음.



[그림 16] 특성화 교실 및 시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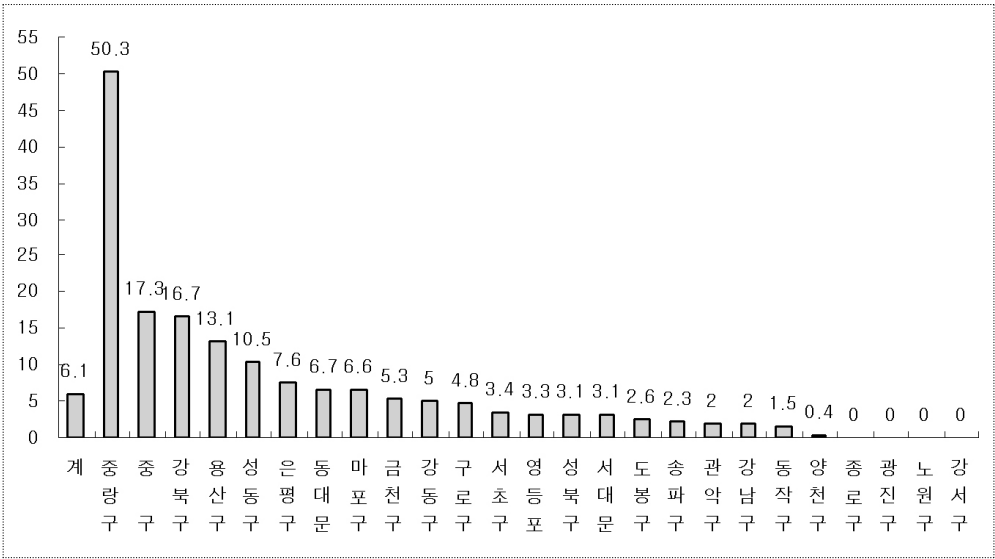
법·제도 및 재정 지원체계 구축

□ 방과후학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필요

- 제도적 지원과 안정적 재원 확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의 방과후활동 관련 조례 제정 필요
-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조례로 입법화할 필요
- 서울시방과후학교지원센터 등의 운영 및 지원체계에 대한 제도적 근거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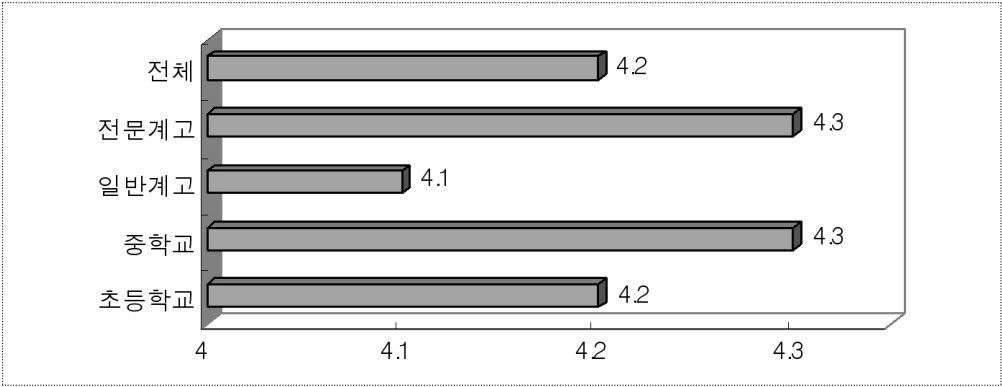
□ 저소득층 학생의 방과후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비용 지원 필요

- 수강하는 강좌수에 제한 없이 저소득층 학생의 방과후활동비를 지원하거나
- 저소득 지역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비를 전액 직접 지원하거나 부족분을 보전하여 학생들의 수혜 폭을 확대할 필요
- 지원이 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용을 확대 지원
 - 재정력과 관심의 차이로 지원액 비율 및 절대액에서 자치구 간 차이를 보정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



[그림 17] 교육사업 예산 대비 방과후학교 지원액 비율

·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일선학교들은 안정적 재원 확보를 4.2점(평균 3점)으로 매우 강조



[그림 18]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

이혜숙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265
lhsook1@sdi.re.kr